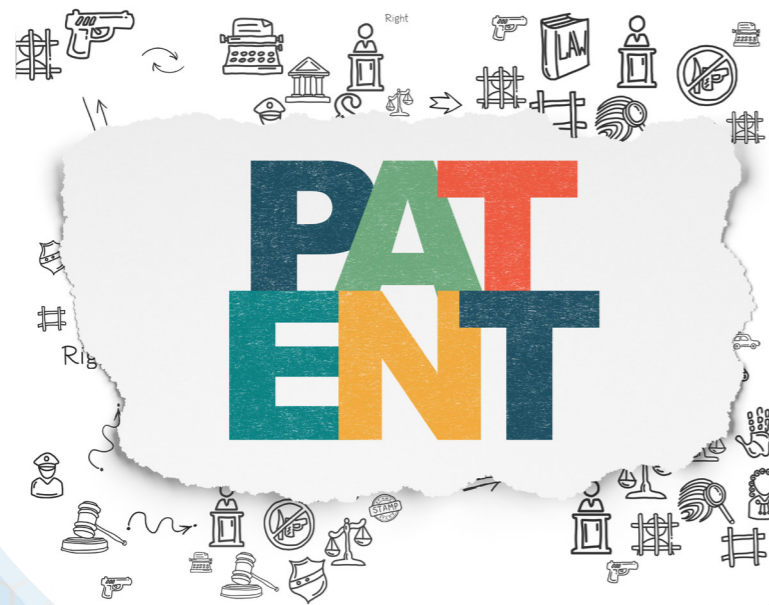


## 안희중 변리사의 직장인 특허상식

### 제1편

# 기술로 변화되는 삶



### 1. 기술로 변화되는 삶

개인적으로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2005년에 처음으로 MP3와 사진이 찍히는 핸드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꼈다. 세월이 지나 스마트폰을 보고 한번 더 놀라고, 2022년 11월 CHATGPT의 등장에 또 한번 놀랐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모두 기술로 내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다.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개발한 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일보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과거와 달리 이젠, 열과 성을 다해 개발한 기술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된다. 과거엔 불법에 대한 인식도 없이,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똑같이 베끼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지금은 최소한 똑같이 베끼는 일은 거의 없다.

### 2. 연재 목차 및 기획 의도

지금도 누군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인해 삶이 변화되고 있을 것이다. 본 연재는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지금도 열과 성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기업 및 개발자,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기술과 특허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특허권 확보 및 활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 본 기사는 총 4편으로 연재할 예정이며, 첫 번째로 기술로 변화되는 삶이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소개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건설 및 교통 신기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로 특허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는 기술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리문서로 기술 문서인 설계도 또는 제품 등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이 슬기롭게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 3.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불빛과 소리를 통해 보행자를 유도하는 것을 볼 때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참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ICT 기술에 비해 도로교통 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을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기술 신성장 아이템 제시,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미래기술 개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조사해보니, 사회안전망 구축 카테고리 내 스마트시티 기술 중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정보시스템을 도로교통 분야 기술로 제시하고 있었다.

물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언급되어야만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도로교통 분야의 미래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는 얻을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사용하여 도시 내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에너지 도입을 통한 미래 지향적 도시를 이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과 관련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정보시스템의 경우도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개념이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첨단 IC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 전기화, 통합화, 공유화, 맞춤형화 된 새로운 교통체계 및 서비스를 일컫는 말로 스마트 교통수단, 통합모빌리티, 공유교통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인적으로, 종래 제품이나 서비스에 감지기(센서)와 통신을 접목시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미 제품과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나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 모두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IoT 기술을 접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4. 결론

특허의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에 IoT를 접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제품에 IoT를 위한 센서 등을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나 형태 등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다.



서비스나 플랫폼의 경우에는 IoT로 얻은 데이터나 정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판단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게 될 때 의미가 있다. 즉, 입력되는 정보가 다양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결과가 예측 가능하게 될 때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IoT 기술을 기반으로 이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나 플랫폼 기술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교통 신호를 따르는 주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공사 방법, 교통정보시스템 등이 먼저 개발된 상태에서 사람의 편의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IoT 등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폰에서 스마트폰까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본격화된다면,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급격한 기술 개발로 인해 삶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과거에 영광을 누리던 기업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둔감해지면 위험하다. 이때, 치열한 경쟁속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진입장벽을 만드는 요소가 특허권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특허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연재에서는 교통신기술, 건설신기술을 통해 기술 경쟁우위와 진입장벽을 만든 사례들을 살펴본다.

안희중 | 변리사

2007~2010 : 삼성중공업 / 2013~2016 : 팬코리아특허법인 / 2016~2020 : 안진특허사무소 / 2020~ :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 ▶ **주요분야** : 국제출원, 특허권, 분야별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관련 심판/분쟁/소송 등
- ▶ **회사위치**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3 (영천동) 메가비지타워 C동 405호

